마크다운을 책으로
Markdown to Book

이 문서는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글을 책으로 만드는 자동화 과정을 시연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글에 적용할 수 있지만, 정보의 위계가 명확한 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크다운(Markdown)은 글의 위계와 구조를 간단한 형식들로 정의하는 서식 문법입니다. 사용자는 이 문서를 따라 인디자인(InDesign)을 통해 문서를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그라픽스 랩에서 제작한 **마크다운을 인디자인으로**를 기반으로 합니다. **마크다운을 인디자인으로**가 편집자와 디자이너의 실무적인 효율성에 목적을 뒀다면, **마크다운을 책으로**는 디자인 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원고를 소책자 형태로 엮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과 사용성에 중점을 둡니다.

일러두기

— 이 글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마크다운 문서를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도비 인디자인 (Adobe InDesign)이 필요합니다. 이 점 양해바랍니다. 향후,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웹에서 마크다운을 책으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 마크다운 (Markdown)은 문서를 작성하는 하나의 서식 문법입니다. 마크다운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문법을 간단히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챕터에서 적용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1. 개요
2. 마크다운으로 원고 작성하기
3. 원고를 인디자인으로 옮기기
4. 책 만들기
5. 맺으며

1
개요

마크다운을 책으로는 마크다운(Markdown)으로 작성된 원고를 인디자인 소책자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이며, 이는 인디자인 환경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파일을 통해 구현됩니다. 스크립트 파일은 간단한 클릭만으로 인디자인에 원고를 불러오고, 페이지를 배열하고, 서식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자동화 환경에서 사용자는 복잡한 디자인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오로지 텍스트에만 집중하여 간단하게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된다."
> — 솔 르윗 (Sol Lewitt)

2
마크다운으로 원고 작성하기

마크다운은 말하자면 암호문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약속을 정해두면 컴퓨터가 그 규칙에 따라 원고를 변환해주는 것입니다. 마크다운은 웹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마크다운 문법은 웹에서 작동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다운을 책으로**는 인쇄물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문법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사용자는 글의 위계와 관련한 몇 가지 문법만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문법은 총 7가지 입니다. 이 중 6가지는 원래의 약속과 같지만 한가지는 페이지를 나누기 위해 추가된 임의적 문법입니다.

마크다운 문법 정리

[1] 제목: 텍스트 앞에 #을 붙입니다.

첫번째로 위계가 높은 제목

두번째로 위계가 높은 제목

세번째로 위계가 높은 제목

네번째로 위계가 높은 제목

다섯번째로 위계가 높은 제목

여섯번째로 위계가 높은 제목

[2] 순서가 중요한 항목: 텍스트 앞에 숫자와 온점을 붙입니다.

1. 첫번째 항목
2. 두번째 항목

[3]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항목: 텍스트 앞에 하이픈을 붙입니다.

- 첫번째 항목
- 두번째 항목

[4] 인용문: 텍스트 앞에 >를 붙입니다.

> 인용문

[5] 강조: 텍스트 앞뒤에 *을 하나 혹은 두개씩 붙입니다.

강조1(밑줄)

강조2(굵게)

[6] 취소선: 텍스트 앞뒤에 ~을 두개씩 붙입니다.

~~취소선~~

[7] 페이지가 나뉘는 지점

+++

마크다운 원고를 txt로 작성하기

좌측의 예시에서 보이는대로, 마크다운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러한 원고에서 위계를 직관적으로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문서를 즉각적으로 미리볼 수 있는 웹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접속해 직접 마크다운 원고를 작성하고 txt파일로 다운받아볼 수 있습니다.

문서를 책을 위한 문서로:

https://jaydashaitch.neocities.org/projects/document-to-document-for-book/

3
원고를 인디자인으로 옮기기

안그라픽스 랩에서 고안한 **마크다운을 인디자인으로**는 인디자인의 찾기/바꾸기를 응용하여, 특정 문자열의 패턴을 인식해 임의로 변환한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마크다운 문법이 웹 환경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변환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마크다운을 책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디자인의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합니다.

스크립트에 대하여

인디자인에서 스크립트는 프로그램 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미리 짜여진 실행 파일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마크다운으로 작성된 원고를 인디자인에 불러오고 특정 문법으로 쓰인 글들을 미리 설정된 서식으로 각각 지정하는 일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크다운을 책으로**의 스크립트는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행합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디자인 과정에 필요한 소요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스크립트를 세팅하는 방법 (macOS 기준)

1. 인디자인을 실행합니다.
2. 인디자인의 상단 바에서 [창] > [유틸리티] > [스크립트]를 선택해 스크립트 탭을 활성화합니다.
3. 스크립트 탭에서 [사용자]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Finder에 나타내도록 합니다.
4. https://j-h-a-r-c-h-i-v-e.com/kr/works/project/pr-008/에 접속합니다.
5. **마크다운을 책으로**의 파일 모음인 markdown-to-book.zip을 내려받고 압축을 해제합니다.
6. markdown-to-book.jsx 파일을 [스크립트]폴더에 옮겨 넣습니다.
7. 인디자인 스크립트 탭의 [사용자] 폴더에 markdown-to-book.jsx가 생성되었다면 세팅이 완료된 것입니다.

인디자인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 (macOS 기준)

1. 압축 파일에 첨부된 markdown-to-book-template.indd 파일을 엽니다.
2. 이 프리셋은 스포카 한 산스 네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압축 파일 내의 폰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인디자인의 스크립트 탭에서 markdown-to-book.jsx를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4. 마크다운 문서를 선택하는 창이 뜨면 불러올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 때 .md와 .txt 파일만 선택 가능합니다.
5. 마크다운 문서를 열면 작업이 진행됩니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6. 작업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눌러 창을 닫고 원고를 확인합니다.
7. markdown-to-book-preset.indd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스크립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정해둔 단락 혹은 문자 스타일이 없다면, 스크립트와 함께 생성된 마크다운 스타일을 직접 수정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책 만들기

마크다운을 책으로의 스크립트는 사용자의 원고를 소책자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이는 중철 제본을 기준으로 하며, 페이지 수는 항상 4의 배수로 채워집니다. 내용이 부족하다면 빈 종이를 덧붙여 4의 배수인 매수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다음의 방식을 거쳐 물리적인 책으로 완성됩니다.

출력 및 제본

먼저 인쇄 데이터를 PDF로 내보냅니다.

1. 인디자인의 상단 바에서 [파일] >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2. 형식을 Adobe PDF(인쇄용)으로 하여 저장을 누르면, 내보내기 사전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3. 상단의 [Adobe PDF 사전 설정]의 [고품질 인쇄]를 선택하고 파일을 내보냅니다.
4. 그 외의 PDF의 세부 설정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출력 시의 설정입니다.

1. Adobe Acrobat에서 파일을 열어 [파일] > [인쇄]를 선택합니다.
2. 프린터를 선택하고, 복사본 수를 설정합니다. 이는 출력할 부수를 뜻합니다.
3. [페이지 크기 조정 및 처리]의 탭에서 [다중]을 선택합니다.
4. 한 면에 인쇄할 페이지 수는 2로, 페이지 순서는 가로로 설정합니다.
5. 이를 양면 인쇄합니다. 양면 인쇄가 어려운 프린터의 경우, 뒷면을 모두 찍고 뒤집어 앞면을 찍으면 됩니다.
6. 소책자 중철은 원하는 판형의 2배 크기로 인쇄하여야 합니다. 반으로 접어 책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출력된 종이를 제본하는 순서입니다.

1. 모든 페이지를 반으로 접어 책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2. 페이지를 펼쳐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3. 제본용 스테이플러를 사용해 종이의 중심에 침을 박습니다.
4. 구멍을 내고 제본용 실로 엮거나, 고무밴드 등으로 묶어 제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본하지 않고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5. 소책자 제작이 완성됩니다.

5
맺으며

마크다운을 책으로는 모든 사용자를 위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책으로 엮고 싶은 내용은 있으나 기술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용자들이 이 도구를 어떻게 조작하고 변형해 나갈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기술의 장벽을 낮추는 보조 장치로 기능하기를 기대하며 기획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솔 르윗의 발언대로 아이디어(혹은 내용)가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작동하여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작업의 가능성은 더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창작을 전개해온 집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울리포(OuLiPo)입니다. 울리포는 제약을 통해 아이디어를 형식으로 바꿔냅니다. 다음은 그들의 선언문 일부입니다.

> 잠재문학작업실(OuLiPo)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보처리 기계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작업하고자 한다.
> — 프랑수아 르 리오네 (François Le Lionnais)

마크다운을 책으로

Markdown to Book

이 책은 안그라픽스에서 진행한
2026년 3월 인터링크 토크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재현
leejaehyeonwork@gmail.com

마크다운을 책으로

https://j-h-a-r-c-h-i-v-e.com/kr/works/project/pr-008/

문서를 책을 위한 문서로

https://jaydashaitch.neocities.org/projects/document-to-document-for-book/